

광양시,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 ‘청년친화도시’ 발돋움

첫 독립부터 결혼·출산까지 4개 맞춤형 월세 20만원·주택자금 대출이자도 지원 8월말 기준 총 357세대 전입 유도 효과 형평성 고려 생애 최초 1회 혜택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청년들의 첫 독립부터 취업, 내 집 마련, 결혼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펼

치며 청년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월세부터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까지 4개 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해 청년층 경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은 부모와 독립해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4개월간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청년의 초기 정착을 돕는 취업자 주거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8-45세 근로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450명이 5억8천1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2018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주택 구입 시 최장 10년간 연 최대 300만원을, 전·월세는 최장 8년간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1천561명에게 72억4천300만원을 지원한 결과, 357세대 494명이 광양시로 전입하는 등 뚜렷한 인구 유입 효과

를 거두고 있다.

결혼·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만 49세 이하)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매월 25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8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오는 10월16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다만, 광양시의 모든 주거 지원 사업은 형평성

을 고려해 ‘생애 최초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각 사업별로 중복 지원은 제한되나 한 사업이 종료된 후 다른 사업으로 순차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신청 전 본인의 주거 단계와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고 부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유리하다.

박미경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성공적인 지역 정착과 미래 설계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청년들의 실제 생애주기와 다변화하는 주거 상황에 맞춘 체계형 정책으로 광양시가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지난해 보성군 화천면 울포술밭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제17회 보성전어축제에 참가한 방문객들이 전어·활어 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추석 연휴 가을 별미 보성 전어 맛보러 오세요”

24-25일 울포해변서 제18회 전어축제 맨손 전어 잡기·구이 체험 행사 풍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가을 별미인 전어를 맘껏 즐길 수 있는 미식 축제를 연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제18회 보성전어축제가 24-25일 이틀간 화천면 울포술밭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화천면청년연합회와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는 ‘달빛을 품고, 전어를 맛보다’를 주제로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울포의 가을

바다와 제철 전어의 맛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백미는 전어·활어 잡기 체험으로 행사 기간 매일 오후 1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성인 50명, 어린이 50명)을 접수한다. 참가비는 1만5천원(미취학 아동 무료)이며 직접 잡은 전어를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전어 굽기 체험(참가비 1만원)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흥을 돋울 부대 행사로 첫날인 24일 오후 보성군립국악단 공연과 개회식에 이어 대상 100만원 등 총상금 200만원의 ‘전어축제 노래자랑’이 열린다.

이와 함께 1등 100만원 등 총 4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 추첨 이벤트도 마련된다.

행사장 한편에는 전어회무점을 비롯해 회전 쫄파전, 쫄파김치 등 지역 농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와 특산물 판매 부스도 선보인다.

오영일 보성전어축제공동추진위원장은 “올해는 추석 연휴에 맞춰 열리는 만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울포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와 제철 전어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다채로운 명절 축제가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흥 ‘조선와요’ 국가유산 전통재료 인증

김창대 제와장 기와·전돌 3개 품목

전국 국가유산 수리·복원 현장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소재 국가무형유산 김창대(사진) 제와장이 운영하는 ‘조선와요’에서 빚어낸 전통 기와와 전돌이 국가유산 전통재료로 공식 인증됐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조선와요는 전통건축 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부터 기와(암기와, 수키와)와 전돌 등 3개 품목에 대한 심의를 통과한 뒤 최근 공고 기간을 거쳐 전통재료 인증이 최



제와장 김창대

인증을 통해 조선와요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기와와 전돌은 향후 전국 각지의 국가유산

종확정됐다.

국가유산청이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제는 문화유산 수리·복원에 쓰이는 전통재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고유 제작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을 통해 조선와요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기와와 전돌은 향후 전국 각지의 국가유산

보수·복원 현장에 공식 투입된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전승된 제와 기술과 생산 기반이 국가유산 보수 체계와 연계됨에 따라 전통 건축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대 제와장은 “장흥의 전통 제와 기술과 재료의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은 결과”라며 “전통 기법을 충실히 계승해 문화유산 복원에 적합한 최고 품질의 전통 재료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지역의 훌륭한 전통 기술이 국가유산 전통재료 인증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고유 기술 전승과 전통 재료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장흥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 기자

화순군, 서울 도심 첫 팝업스토어 운영

13일까지 연남동서 ‘화사로와, 화순’

적벽 등 모티브 체험프로그램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의 숨겨진 매력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선보인다.

10일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스킨타운스몰에서 화순 관광 팝업스토어 ‘화사로와, 화순’을 운영한다.

재단이 수도권 MZ세대와 잠재 관광객을 겨냥해 서울에서 팝업스토어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는 화순여행 무릉도원 탐험기를 콘셉트로 지역 대표 명소인 화순적벽과 특산물 북송아를 모티브로 한 오감 만족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단순 관람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화순 위치 찾기 ▲6개 맞춤형 테마 여행 코스(사찰·치유관광 등)를 탐색하는 아카이빙 존 ▲화순적벽 문화축제 퍼즐 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재단은 행사를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관광객 유치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미션을 완

료한 방문객에게는 화순 감성을 담은 한정판 관광 굿즈를 증정하며 10월 중 개최되는 화순적벽 문화축제 안내와 함께 현장에서 여행 상품 예약 상담도 지원한다.

또한 주요 여행사·로컬 크리에이터를 초청해 관광 상품 판매를 위한 B2B 네트워킹도 강화할 방침이다.

팝업스토어는 행사 기간 매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구종현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팝업스토어는 화순의 매력을 서울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이라며 “방문객이 경험하고 다시 찾고 싶은 화순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 화양초교 독서인문 수업 눈길

1학년 학생들 스마트 기기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여수교육지원청은 10일 “최근 화양초등학교가 1학년 학생 4명을 대상으로 질문과 성찰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 교육 공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수업은 그림책을 매개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확장해 자신만의 상상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생들은 ‘모양으로 상상하는 세상’을 주제로 그림책을 읽으며 주변의 익숙한 모양들을 관찰했다. 이어 태블릿PC와 디지털 디자인 도구인 캔바(Canvas)를 활용해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직접 조합하며 상상 속 세계를 하나의 작품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묻고 답하는 등 사고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김진선 기자



수업을 진행한 김창호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화양초를 시작으로 초등학교에서 총 9차례의 시·군 단위 수업 나눔을 이어가며 교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육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최근 벼 재배 농가를 방문해 병해충 예찰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벼 병해충 예찰·방제 강화

벼멸구·깨씨무늬병 등 확인 당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10일 “최근 벼 재배 포장에서 벼멸구와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병해충이 확인됨에 따라 현장 예찰과 농가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생육 후기에 접어들 벼에서 병해충 발생이 늘어 수확기까지 지속 예찰과 적기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월 중순 남부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에 유입된 벼멸구가 여러 세대를 거

치며 개체 수가 늘어 인근 시·군에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담양에서도 생육 후기에 접어들면서 벼멸구를 비롯해 깨씨무늬병과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발생이 확인돼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광영 기술보급과장은 “수확을 앞둔 시기에는 병해충 발생 여부를 자주 살피고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평소보다 논을 세심하게 살피고 병해충이 확인되면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적기에 방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 청년4-H 회원, 女농업인 농기계 챌린지 ‘금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10일 “최근 군청년4-H 여성회원들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열린 제2회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여성농업인의 기계 활용 능력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대회에는 전국 30개 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군 청년4-H 회원 4명은 2인 1조로 팀을 이뤄 ▲관리기 두둑 만들기·말칭 ▲반자동 정식기 모종 정식 ▲수신호 활용 콤바인 상차 ▲트랙터 코스 운전 등 4개 종목에 출전했다.

이들은 대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5개월간 구슬땀을 흘리며 실전 훈련에 매진해 왔다.



구례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영농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기계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